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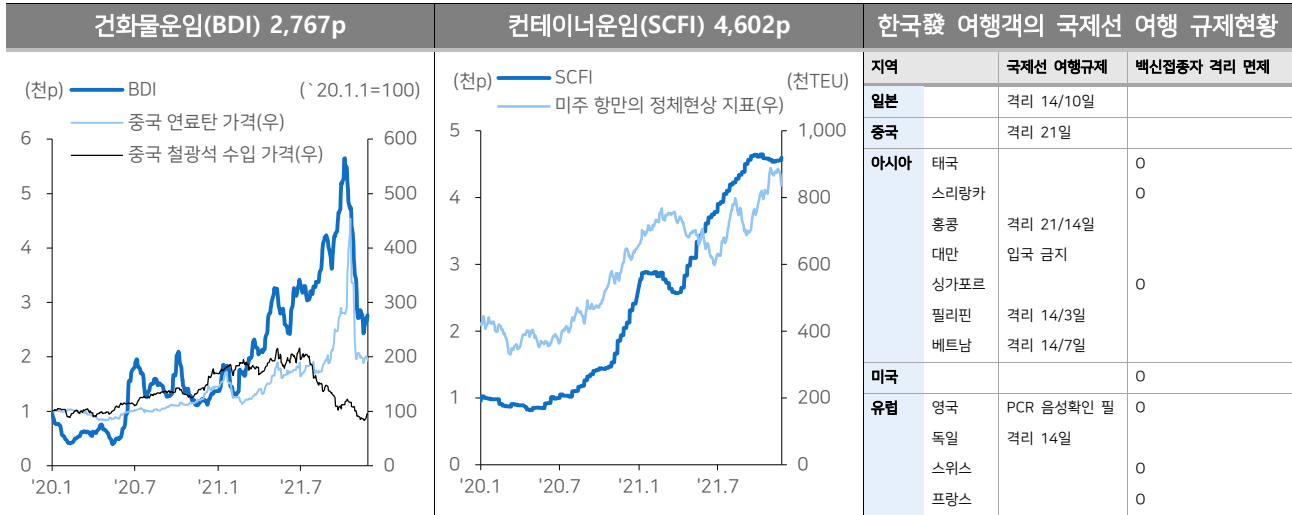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2021. 11. 29 (월)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자료: Clarksons, 외교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al Seaborne Trade on the Rise in 2021 as new Routes Emerge

시장관계자에 따르면, 석탄 교역항로에 주요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도됨. 6위의 석탄 수출국가인 콜롬비아의 경우, 1~10월 유럽항 수출량이 전년대비 +83.8% 증가했다고 보도됨. 중국항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됨. 콜롬비아의 석탄 최대 수출지역은 터키라고 보도됨. (Hellenic Shipping News)

'Missed opportunity' to decarbonise shipping at MEPC 77, says ICS

IMO(국제해사기구)의 MEPC(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77차 회의가 종료되고, ICS(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는 회의 결과에 실망을 표했다고 보도됨. COP26에서 각국의 성명과 약속들이 실행으로 변환되지 못했다고 보도됨. (Hellenic Shipping News)

'Alternative-fuelled' ships make up 34% of orderbook, Clarksons says

Clarksons에 따르면, 현재 선박들의 수주잔고 중 34%는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라고 보도됨. 11월 초 집계된 수주잔고 기준으로 805척의 선대(5,410만GT)가 대체연료를 사용한다고 집계 됨. (TradeWinds)

항공업계, 코로나 새 변이 노심초사...신규운항 대신 증편

위드 코로나를 맞아 국제선 운항 재개를 준비하던 국내 항공업계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우선 기존 운항 중인 노선을 중심으로 항공편을 확대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보도됨. 현재 유럽은 다시 국경 통제를 시작했고 세계 각국도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여행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됨. (아시아경제)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